

계속되는 가자지구 인종학살과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내자!

10월 11일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집중행동에 참가하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과 점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학살과 봉쇄를 지속하는데 이어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과 영구 점령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등 생존에 필요한 물자의 반입을 가로막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과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체포, 정착촌 확대가 계속되고, 극우 시온주의 정착자들의 폭력(포그롬)을 지원·방조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출범시킨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이사회’ 역시 이러한 전쟁 범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이나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장기 점령과 식민 통치를 제도화하려는 구상입니다.

점령과 학살을 지속하면서 피점령 민중에게 저항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트럼프가 휴전과 공격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군사적 압박과 공격을 지속하며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을 검토하고,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점령에 어떤 형태로도 공조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8월 4일 가자지구에서 열린 이스라엘 공습 희생자 112명의 집단 장례식. 3년 전 전쟁 초기에 파괴된 건물에서 수습된 유해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도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노동자들은 파업과 이스라엘행 무기·군수물자 운송 거부에 나섰으며 학생·청년과 다양한 사회운동이 행동을 이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런던 국제반전회의에는 23개국 활동가들과 영국 11개 전국 노동조합이 함께해 팔레스타인 인종학살과 전쟁·군사화에 맞선 국제적 공동행동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가자 인종학살 3년에 맞춰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10월 국제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국제연대 행동의 일환으로 10월 11일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집중행동을 개최합니다. 78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식민 점령과 추방, 학살 속에서도 해방을 향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의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도 결국엔 광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연대를 멈추지 맙시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넓혀 온 연대를 10월 11일 거리에서 더 큰 힘으로 모읍시다. 세계 곳곳에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과 연대해 이스라엘의 인종학살과 점령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가자 학살 3년 전국 집중 집회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10월 11일(일) 오후 2시 | 서울 도심

131차 집회와 행진

**팔레스타인을 죽이지 마라!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반대한다!
전쟁 지원 말라!**

8월 22일(토) 오후 4시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아랍어, 영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이스라엘 대사관 앞 행진

문학 낭독회
팔레스타인을 읽고, 쓰다

○ 일시: 8월 29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인근)



▲ 참가신청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웹사이트 ▶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사용됩니다.

